

2020년 1월 시청자위원회 (서면회의)

2020년 1월 28일 (화)

참석 : 김선재위원장, 권부남 부위원장, 박상민 위원, 양선희 위원, 서한나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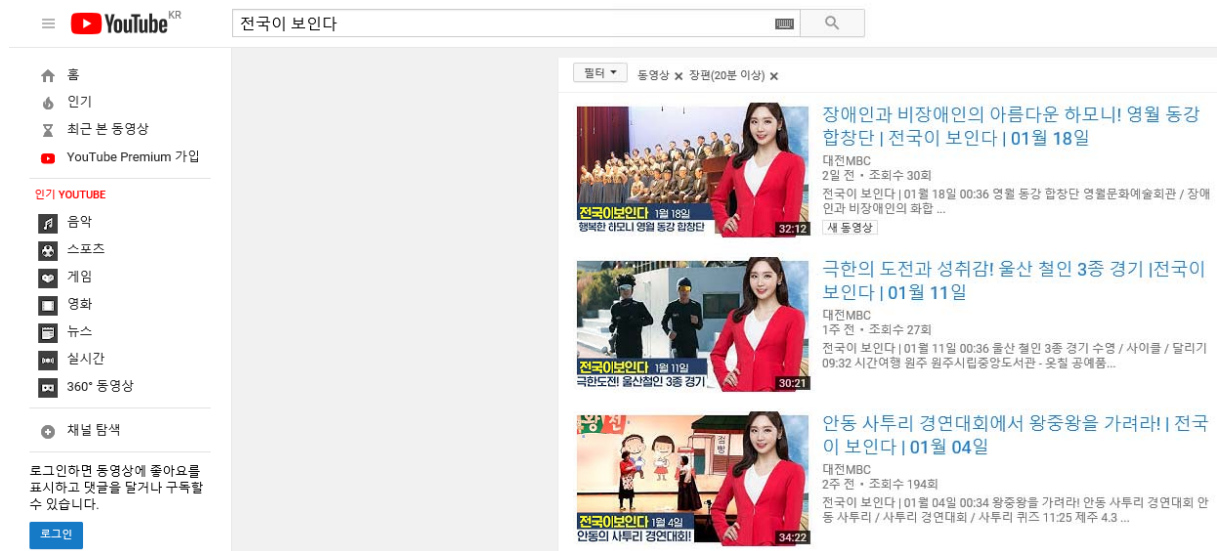
김선재 위원장

유튜브 및 VOD 콘텐츠 이미지 개선 제안, <전국이 보인다>

지난 시청자위원회에서 제안해 드렸던 '노정렬의 시사각각' 유튜브 이미지를 이번 1월부터 개선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대부분의 콘텐츠가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지만, 추가로 전국이 보인다는 콘텐츠 이미지 내에 강해라 캐스터의 이미지가 불필요하게 크게 제시되어 있어 개선을 제안합니다.

강해라 캐스터의 매끄러운 진행 또한 '전국이 보인다'의 중요한 요소지만 매 방송마다 세 가지 정도의 화제의 현장이나 사건, 전국 각지의 이야기와 정보를 담아내고 있는 만큼, 캐스터의 이미지보다 시청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장면과 키 포인트를 요약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권부남 부위원장

<노정렬의 시사각각 : 충청교육 백년대계> (1월 19일)

새롭게 바뀌는 교육정책에 대한 각계의 시각과 지난해 교육계에 화두로 떠오른 교육공정성의 문제를 짚어보면서 교육의 방향을 환기시켜준 프로그램이었다. 특히 교육당사자인 학생이 패널로 참여해 프로그램의 활력을 더해주는 느낌이 좋았다.

<특집다큐멘터리 : 자연을 품은 도시 대전. 물위의 산책> (1월23일)

아름다운 영상이 돋보였다. 우리지역에 대청호라고 하는 소중한 자원이 있음을 다시한번 일깨워준 다큐였다.

<뉴스데스크 > (1월27일)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세슘 발암물질 유출 보도가 나갔는데 대전지역의 중요뉴스라고 생각되어 지역방송에서 한번 더 다룰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아 아쉬웠다.

박상민 위원

항상 지역의 시청자들을 위해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프로그램은 <생방송 아침이 좋다>입니다. 지난 13일에 방송된 프로그램에서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라는 코너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겨울 나들이 장소로 둔산 대공원 내 위치한 엑스포 스케이트장과 열대 식물원을 소개했는데, 스케이트장에서는 어머니께 스케이트를 배우고 있는 아이와 손자 손녀와 함께 나온 할아버지가 가족과 함께 겨울을 즐기는 모습이 훈훈한 느낌을 주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열대 식물원 부분에서는 12월에 개장한 다육 식물원과 식물원 내 다양한 열대 과일 소개도 흥미롭게 시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우리지역의 흥미로운 장소를 많이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종에 대한 관심도 높으니, 세종에 대한 보다 많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양선희 위원

<뉴스데스크>

1. 1월 1일 '쥐 띠들의 소망'

60, 72, 84, 96년생 지역민의 삶과 새해 소망을 담은 내용이 인상적이었음

사건, 사고나 단순 인터뷰가 아닌 뉴스의 주체로, 긍정적 내용을 담은 뉴스에 지역민이 등장해 참신하고, 주목도가 높았으나 대전, 세종, 충남을 권역으로 하고 있고, 충남에는 고령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과 세종의 젊은 층 또는 경제활동인구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은 다소 아쉬움

충남의 농어촌 지역민이나 다수세대가 되어가는 노년층까지 포괄하는 포용력이 요구됨

2. 1월 2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한 달'

12월~3월에 운영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실태를 정부청사 차량 2부제 점검으로 파악해 보고, 실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이 오히려 증가하는 등의 문제를 들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에 비해 제도의 실효성은 낮다는 점을 지적하는 시의적절한 뉴스였다고 생각되며, 1회성 현실 고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관심과 감시를 통해 개선방안 도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램

3. 1월 10일, 13일 '일회용 주사침 재사용 파장', '버젓이 영업재개...'

대전의 한 정형외과에서 주사침을 재사용한다는 민원이 관할보건소에 접수되어 확인 결과 사실로 밝혀진 점, 후속보도로 3주의 휴업 후 별도의 안내나 사과 없이 버젓이 영업을 재개한 사실을 알려 시민들로 하여금 의료사고 위험 및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점에서 긍정적 보도

병원 관계자와 전문가 인터뷰만 이루어졌는데 해당 병원에서 치료 또는 시술을 받았던 환자 인터뷰 등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시민이 공감 가능한 인터뷰가 필요했던 보도라고 생각됨

4. 1월 13일, 15일 '세종 중학생 도 넘은 SNS 성폭력', '허울뿐인 학교폭력제도'

단독보도로 세종의 중학생들이 무차별 음란메시지로 성폭력을 일삼은 사실과 미온적으로 대처한 학교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통해 학교 폭력, 언어적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이에 대한 학교 대처, 제도적 미흡 등을 지적하며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SNS 성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함

학생들의 성폭력 메시지 내용이 두 차례의 보도에서 모두 제시되었는데 몇몇 단어들을 블라인드 처리했음에도 매우 노골적인 내용이어서 충격적이었고, 어린 자녀들과 시청하기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음. 시청자가 구체적 내용을 모두 인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해 보다 주의 깊게 판단해주시길 바람

<내가 그리는 세상>

1월 4일 '밥 먹읍시다'

밥을 통해 가족의 사랑에 대해 생각하는 내용인데 반해 제목은 쌀 소비 촉진이나 건강한 식생활에 관한 내용이 연상되어 제목과 내용이 다소 부합되지 않는 측면에 있었음

전반부의 드라마타이즈와 이어지는 여러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밥, 식구,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구성이었고, 시청자 누구에게나 해당되고, 나름의 해석이 가능한 내용이었다고 생각

1월 11일 '2020년 새로 바뀌는 제도'

주민등록증, 전자여권,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개선되는 제도 5가지에 대한 정보 제공이 알기 쉽게 제시되어 유용했음

1월 18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게 뭘까?'

4·15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에 대한 정보를 시각적 제시와 함께 풀어 설명해준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으나 개념을 학습시키는 교육방송과 같은 인상을 주기도 했음

서한나 위원

<노정렬의 시사각각 : 21대 총선 석 달 앞으로, 정치 바꿀 선택은? > (1월 12일)

18세 선거권 확대와 관련해 본 방송에 고등학생 패널을 섭외한 것이 돋보였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사회적으로 의미도 있지만 시청자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패널 구성이 안정적이었다. 특히 목원대 행정학과 권선필 교수가 21대 총선뿐 아니라 다당제를 비롯해 정치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국민들이 선거의 장을 보며 선거를 해나가야 한다”라고 말한 부분이 인상 깊었다.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국가가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생각을 먼저 정리하고 위로 요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마찬가지로였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의 의미를 다시 새길 수 있는 발언이자, 이 시점에 지역방송에서 다뤄주면 좋을 반가운 이야기였다.

같은 맥락에서 윤정인 활동가의 출연으로 이번 총선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이슈들이 부각된 것도 의미있었다. 그의 발언 중 “저출생이 문제라고 하지만 실제로 영유아 간식비는 턱없이 적은 상황” 등이 지적되기도 했는데, 국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되면서 총선 직전에 생각할 거리가 되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사회자 노정렬 씨의 태도였다. 방송 중반에 유지은 학생에게 “저희들이 말하는 거 이해했죠?”라고 말하는 것이 다소 무례한 느낌을 주었다. 선거 연령 하향에 따른 또래 반응, 교실 분위기 등을 묻는 상황에서 유지은 학생이 “생일에 따라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어서 혼란스럽다”라고 하자, 노정렬 씨가 “참으라고 하세요”라고 답했는데, 여러 모로 생각해봐도 불필요한 발언이었으며 오늘 방송에서 패널들이 보여준 높은 수준의 토론에 품격을 낮추는 태도였다고 생각한다. 유머라고 보기에는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었다. 사회자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요약하면, 1월 12일 방송은 선거를 앞둔 시청자에게 새로운 생각거리를 던져주면서 동시에 현실의 여러 가지 모순점을 돌아보게 하는 의미가 있어 매우 유익했으나, 사회자 노정렬 씨의 태도가 아쉬웠다.

<건강플러스 :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소고기” / 협심증> (1월 18일)

이번 편 건강밥상에서는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소고기” 라는 부제로 소고기미니햄버거 만들기를 방송했다. 요리연구가 정복경 씨의 목소리가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서 따라가기 좋았다. 다만, 끝에 “긴 겨울 아이들과 같이 지내시기 힘드시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버거, 엄마가 직접 만들어주시면 더 맛있고 영양가도 좋습니다.”라는 대사가 귀에 걸렸다. 성별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멘트였다. 이런 경우 “가족들이 다 같이 만들어 먹으며 긴 겨울을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처럼 성별고정관념을 강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본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건강플러스>가 시청자에게 맛있는 밥상과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생활밀착프로그램이라는 점을 살피더라도, 제작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다. 방송 초반 “추울수록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나레이션을 시작으로 소불고기 만들기와 소고기미니햄버거 만들기를 방송했다. 최근 호주에서 발생해 서울 면적의 100배에 달하는 토지를 태운 호주산불 사건을 떠올려본다면 꼭 ‘소고기’를 음식 재료로 삼아야 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재난과 소고기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호주 산불은 단순한 화재 사건이 아니라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상기온이 계속되면서 토지가 건조해졌고, 단순한 화재사건일 수 있었던 산불이 최악의 재난으로 확대된 것이다.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기후위기에 경각심을 느끼며 주 1회 채식 캠페인을 SNS상에서 벌이고 있기도 하다. 일부의 움직임이 아니다. 최근 영국 런던대 골드스미스 칼리지는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캠퍼스 내 소고기를 퇴출했고 프랑스는 전국 유치원과 학교에 주 1회 채식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소재를 선택하는 어려움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모든 시청자가 육식을 반가워한다는 믿음에 대해서 재고해볼 때가 아닐까. 적어도 지금 2-30대 시청자들은 개인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고 있다. 시청자의 의식 수준은 계속해서 변할 것이다. 익숙하게 생각해오던 것을 의심하면서 다른 관점으로 음식을 바라본다면, 지금까지 방송에서 다뤘던 소재도 다르게 다뤄볼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소재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분투하시는 제작진 여러분께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